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북미 복음주의 운동에 드러나는 최대의 실패와 약점을 통렬하게 파헤친 복음주의 운동사의 전문가 마크 놀(Mark A. Noll)교수의 역작을 소개한다.



저자 마크 놀(Mark A. Noll)은 북미의 복음주의권에 속한 저명한 역사가다. 그는 밴더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휘튼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현재는 미국 가톨릭권의 명문인 노트르담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같은 대학에서 봉직 중인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과 함께 복음주의권의 학문적 탁월성을 고양시킨 학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주요 연구서를 출간하여, 영국의 데이비드 베빙턴(David Bebbington)과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와 더불어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마크 놀은 북미 복음주의 운동에 드러나는 최대의 실패와 약점을 통렬하게 파헤치고 있다. 놀에 의하면, 북미 복음주의가 보여 주는 지성적인 피상성과 편협성은 거의 스캔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특히 북미 복음주의 운동이 감성을 자극하는 면에 있어서 고도의 순발력을 발휘한 데 비하면, 그 운동의 지성적 곤궁 상태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스캔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주의자들이 의지를 움직여 선교와 구제와 사회정의를 추구하도록 이끈 점에서 놀라운 역동성을 보여 준 데 비하면, 그 지성적 표피성은 탄식과 애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마크 놀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북미 복음주의 운동의 지성적 실패를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대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과 의지뿐 아니라 지성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사용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지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란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하며, 더 심하게 말한다면 참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크 놀이 말하는 복음주의 지성이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복음주의 지성'이란 복음주의 신학을 포함하면서도 복음주의 신학을 넘어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것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진리의 관점에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해 사유하며 해석하고, 그 사유와 해석의 결과를 삶의 전 영역에서 적용해 내는 성향이나 능력을 뜻한다.

복음주의 지성은 모든 영역에 대해 성경적인 사유와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대전제 하에 모든 영역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심오한 사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와 해석이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화되는 통합적 적용(integrative application)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마크 놀이 정의하는 복음주의 지성이다. 이러한 지성적 작업은 신학자만의 일이 아니라, '네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평범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마크 놀은 주장한다.

마크 놀은 북미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가 그 편협성과 피상성으로 인해 결코 밝지 않으며, 지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북미 복음주의는 천박한 감정주의에 함몰되어 점점 몰락해 갈 수 밖에 없으리라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 북미 복음주의의 몰락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퇴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제 논의를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자. 우선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북미, 특히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북미 복음주의

뿐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 역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성경의 관점에서 깊이 사유하고, 그 결과를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성 운동의 영역에서 심각한 결핍을 보이지 않는가?

125년이라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와 같은 전통 종교가 지배적인 한국의 토양에서 한국 기독교는 극단적인 감정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또한 복음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뚜렷한 복음주의적 자의식을 가진 지성 운동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의 복음주의 지성 운동은 지난 80년대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미 기독교의 역사는 이미 500년이 넘었고, 18세기 복음주의 대각성이 일어난 지도 거의 300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음주의 지성 운동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해석의 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 복음주의 지성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큰 유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감성과 의지뿐 아니라 지성을 다 해서 사랑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 운동은 지성 운동의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마크 놀의 예언자적 외침을 우리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듣고,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며, 그 실천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기에, 한국 복음주의 지성 운동에 너무나 요긴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독자가 된다면 큰 유익을 누릴 것이다.

글. 정성욱 덴버신학교 교수